

“일할 때도 쉴 때도 늘 최고의 순간처럼 살죠”

컬처 & 피플

음악감독

박칼린



“여성들이 본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잖아요.”

스타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47)씨는 광주일보 기사를 만나 지난 27일 무대에 올린 ‘19금’ 공연물 ‘미스터 쇼’ 얘기를 꺼냈다. 박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여성만을 위한 성인 전용소로 화제를 모았다. 포스터 문구도 ‘여성들이여, 욕망을 깨워라! 핫 하고 짜릿한 쇼가 온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이다. 애초 남성의 성(性)을 버젓이 상품화하는 스트립쇼를 ‘공연’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10년 전에 대본을 써놓았어요.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사회적 금기나 터부에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공연을 보고 친구들에게 뽐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연 수위 문제로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윤 기자님이 만나려 와주세요. 하하”

“칼 감독”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박칼린씨는 뮤지컬 음악감독이다. 대한민국 음악감독 1호로 ‘명성황후’, ‘아이다’, ‘렌트’, ‘시카고’ 등 굵직한 뮤지컬을 맡았다. 방송 예능 프로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의 이미지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스터 쇼’를 연출하는 것에 고개를 갸웃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는 최근 마술, 홀로그램, 국악, 댄스 등이 버무려진 버라이어티쇼 ‘카툰’을 무대에 올린데 이어 오는 6월에는 뮤지컬 멀티미디어 볼쇼 ‘서머나이트 주크박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창작은 물론이고 작품선택에 고상한 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작품이나 일을 선택했

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체질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오직 현재, 이 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연 예술계에서 그녀는 ‘마녀’로 통한다. 연습 게을리하는 배우, 연습시간에 허튼 짓하는 배우를 그대로 놔두질 않는다. 박 감독에게 공연 연습은 송고하기 때문이다. 이물질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성실한 영역에 속한다.

“배우에게 연습은 자유를 얻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 노래, 연주 등 모든 것이 물리적입니다. 모두 연습을 바탕으로 몸에 익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줄줄 나올 때야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저와 함께 하는 배우들은

향이 구레이고 친척 대부분이 전라도 출신이어서 자신이 살았던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사투리에도 능하다. 해남 출신으로 ‘뮤지컬 켈피언’ 애칭을 갖고 있는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그를 일반적으로 ‘전라도 촌녀’이라고 부른다. 공연계에서 이들은 ‘박-박 남매’로 통한다. 박 감독에게서 전라도성(性)을 찾자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삶을 산다는 점이다. 흥이 일어나면 죽도록 일하고 쉴 때도 ‘재미있고 무식’하게 된다. 그가 각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여행과 휴식의 주제는 다양하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식탐, 쇼파에 하루종일 누워 있기, 수영만 하기, 휴대전화 끄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기…

성인 여성 전용 공연물 19금 ‘미스터 쇼’ 화제

학생 합창단 지휘…6월엔 멀티미디어쇼 공연

할아버지 고향은 구례, 전라도 사투리도 능해

혼신을 다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세포까지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릴 적 말려 교향곡을 자장가로 듣고 자란데서 알 수 있 듯 그녀는 예술적 세례를 받고 자랐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첼로 학사를 받았고, 피아노, 발레, 국악 등 음악과 예술 속에서 감성을 키웠다. 음악의 궁정적 예너지를 체득한 그녀는 현재 학생 합창단을 꾸리고 있다. 글리(Glee)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해 클래식·가곡을 제외한 팝, 영화음악, 쇼트(뮤지컬 노래) 등을 하모니로 빚어내는 형태다.

“학생들이 ‘일진’을 선포하는 것과 남학생들이 걸그룹 색시댄스를 흉내내는 것, 아이돌 스타를 동경하는 것에는 긍·부정적 효과를 떠나 같은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끼를 발산하는 마당을 마련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죠. 저마다 스타가 될 수 있는 게 합창이고 하모니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니아 출신 어머니를 둔 그녀의 뿌리는 사실 전라도다. 할아버지의 고

박 감독은 ‘카리스마와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때문에 초청강연에 나서기도 한다.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를 움직여 하모니를 이끌어 내는 그의 리더십에서 뭇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다.

“아버지 어머니, 스승들에게서 배운 내용과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들려주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저를 멘토로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려 한다면 실망할겁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멘토가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작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명창 박종진 선생에게 낙점돼 판소리를 배운 박 감독은 언젠가 국악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내놓을 것 같다. 자신이 시나리오를 써놓은 ‘구미호’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작품으로 꼽았다. 구미호가 탄생하기 전(前)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오래전 대본을 써놓았다고 했다. “고교학자도 등장하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어요.”(웃음) /서울=윤영기기자 penfoot@/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전주 남부시장 2층에 들어선 ‘청년몰’의 영업규칙이다. 기성세대들의 눈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슬로건이지만 20여 개의 점포는 금과옥조로 여긴다. 점주들의 평균 나이는 스물 아홉. ‘범이네 식촌이’, ‘순자씨 밥집’, ‘만지면 사야 합니다’ 등 점포 문패들도 이색적이다.

청년몰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남부시장을 문화기획자들이 되살려낸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트다. 젊은 기획자들은

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기획자들에게 광주는 살기 팍팍한 도시다. 지난 27일 광주문화재단과 28(이팔)청춘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은 ‘젊은 그들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광옥 광주발전연구원원의 일명 ‘피라미드와 사다리론’은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피라미드와 사다리

상인들이 참고로 쓰던 2층 옥상을 상상력과 문화코드로 확 뜯어 고쳤다. 특히 인디밴드 공연과 베틀시장을 메인무대에 올린 ‘토요야시장’은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그 결과 50대 이상이 90%를 차지했던 주고객층이 20~30대로 낮아지는 등 활기를 되찾았다. 젊은 문화기획자들의 역량을 보여준 청년몰은 이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1순위로 떠올랐다.

요즘 광주에서도 토크투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똘똘 ‘청춘’들이 뿔뿔하다. 지난 2003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문화관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일꾼’들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끼있는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는 윤현석, 스토리텔링으로 월봉 사원을 문화명소로 바꾸고 있는 박시훈, 문화기획자 1세대로 꼽히는 정민룡, 전교필, 박성현씨 등 열손가락이 부족한 정

미래를 꿈꾸는 젊은 기획자들은 많지만 이들의 끼와 열정을 키워주는 정책이나 시스템이 부재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말이다. 청년기획자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문화수도 빅 프로젝트들이 서울 기획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이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국내외 연수를 통해 문화기획자 양성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이 ‘큰 판’에서 놀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능력을 끌어 올리는 ‘사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상력이 넘치는 청년 기획자들은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한 문화광주의 미래는 없다.

〈편집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공채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일까지 제3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미디어아트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였다. 올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확정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술감독은 미디어아트 전시 및 축제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선정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옥상 시공 후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헬렌 이영후